

젠더 분석을 통한 일본의 지방정치 읽기

신기영

- 大山七穂・国広陽子, 『地域社会における女性と政治』, 東海大学出版会, 2010.
- Sherry L. Martin, *Popular Democracy in Japan: How Gender and Community are Changing Modern Electoral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2011.
- Robin M. LeBlanc, *Bicycle Citizens: The Political World of the Japanese Housewif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 尾内隆之訳, 『バイシクルシティズン-「政治」を拒否する日本の主婦』, 勁草書房, 2012.
- Robin M. LeBlanc, *The Art of the Gut: Manhood, Power, and Ethics in Japanese Politic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0.

일본 정치를 이해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지금까지 주류 일본정치학은 일본 정치를 이해하는 데 젠더라는 분석시각의 유용성에 대해 거의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일본 정치에서도 다른 정치체제에 못지않

신기영(申琪榮)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학(시애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학술진흥회 외국인특별연구원을 거쳐 2008년부터 일본 국립 오차노미즈(お茶の水)여자대학 대학원 인간문화창성과학연구과 준교수와 동(同) 대학 젠더연구센터 전임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젠더와 정치, 페미니즘 이론, 비교일본사회 등이며, 공저에 『ジェンダー・クオータ：世界の女性議員はなぜ増えたのか?』(明石書店, 2014), *The Routledge Handbook of Japanese Politics*(Routledge, 2011), *Global Gender Research*(Routledge, 2010), *Risk and Public Policy in East Asia*(Ashgate, 2010), 『다문화사회 일본과 정체성 정치』(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国家 / ファミリーの再構築』(作品社, 2008) 등이 있다.

게 젠더는 언제나 중요한 문제였다. 누가 근대 정치체제에 참여할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의미하는 20세기 초 참정권 논의를 통해 보통 남성이 신민에서 시민으로 확대 포섭되는 과정에서, 여성은 미성숙한 정치 주체로서 정치 집회에서 발언하거나 참여하는 것조차 법률로 금지되었다. 전후 헌법과 선거법이 개정되어 여성도 유권자 및 피선거권자가 된 후에도 일본의 '민주주의' 정당정치는 철저하게 남성의 영역이 되어 여성의 형식적인(법률적인) 권리가 실질적인 정치대표성 확보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에서 '여성'은, 앞서 언급한 정치에서 미숙이나 자격미달의 기호로써 뿐만 아니라 새 정치나 생활정치 같은 새로운 정치적 이슈의 상징으로도 흔히 사용되어 왔다. 또한 여성들은 제도 정치 밖에서 다양한 형태로 정치 활동에 참여하여 왔다.

지금까지 젠더를 주제로 일본 정치를 분석하고자 한 시도가 없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일본 정치에서 여성의 부재, 다시 말해 여성의 정치적 과소 대표성의 현황과 정치 영역에 진출한 소수의 여성 정치인(주로 여성 의원)의 '성공' 케이스를 탐구한 것이었다. 물론 왜 여성이 주류 정치 영역에서 부재하는가 하는 질문은 여성 정치 분야의 가장 흔한 질문이면서 또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다. 다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사회가 가진 여성 일반에 대한 문화적 편견이나 여성들의 자원과 능력의 부족에서 찾는 설명 방식은 여성의 낮은 대표성 문제를 여성 자신들의 문제로 축소시킨다. 또한 가부장적 문화를 가진 많은 국가에서 여성 대표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와, 역으로 일본과 같이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가 왜 젠더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치 영역의 젠더 분석의 과제는 여성 정치인을 과도하게 주목하는 것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정치 제도와 정당정치 문화의 남성 중심성, 비공식 제도와 남성들의 네트워크, 나아가 여성성/남성성이라는 젠더 기호의 정치적 의미 및 젠더

규범이 어떻게 정치를 남성들의 당연한 독점 영역으로 만들며 특정 남성들의 소유물로 구축하는지를 보다 분석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주제서평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최근에 출간된 네 권의 저서를 통해 일본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젠더 분석 시각의 유용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르블랑의 저서가 두 권, 그리고 2010년 이후에 일본과 미국에서 발간된 두 권의 저서를 그 대상으로 했다. 르블랑의 저서를 두 권 모두 포함한 것은 필자가 보기에 그의 저서가 일본 정치의 젠더 분석의 가장 수작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1999년의 *Bicycle Citizens: The Political World of the Japanese Housewife*(자전거 시민: 일본 주부들의 정치세계)가 2012년에 일본어로 번역 출간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저서는 아직 불모지나 다름없는 일본 정치의 젠더 분석의 귀중한 업적으로 각각 분석의 수준은 다양하지만 젠더 관계 또는 젠더화된 정치 주체로서의 여성 시민의 경험을 통해 일본 정치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 서평에서는 네 권의 저서를 바탕으로 ① 일본 의회정치에서 성별 대표성의 현황, ② 여성들의 (다른) 정치참여 방식, 그리고 ③ 주류정치가 여성을 배제하는 메커니즘 또는 남성 지배적인 권력의 재생산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일본 지방의회 현황과 여성 의원의 부재

오야마 나호(大山七穂)·구니히로 요코(国広陽子)의 공저 『지역사회의 여성과 정치』는 일본어로 출판된 거의 최초의 본격적인 여성 정치 학술서다. 저자들은 사회학과 사회심리학 전공자로 정치학 이론에 입각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성 정치학자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일본 학계에서 여

성과 정치, 그리고 젠더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들이다. 저자들은 비주류 정치학자로서의 자신들의 입장을 역으로 이용하여, 왜 정치가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지금껏 정치학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왔던 '정치'의 이해 양식에 의문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지금까지 '정치'를 인식해온 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치적인 것'을 포함해 정치 영역을 넓게 이해할 필요를 주창한다. 기존의 좁은 의미의 '정치'의 틀을 고수한다면 결국 정치(적인 것)를 남성에 의한 남성의 활동 영역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문제들, 예를 들면 일상적인 생활영역이나 가족 관계가 어떻게 여성들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거나 또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여성의 시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저자들로 하여금 여성에게 보다 가까운 생활정치의 장인 지방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고 통계적인 데이터 분석에 더하여 가나가와(神奈川)현을 사례로 여성 지방의원에게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병행한 이유가 되었다. 인터뷰 조사는 현역 의원 이외에도 행정직, 전 의원, 미디어 관계자에게도 진행하여 여성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여러 요인을 다각도에서 분석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의 가장 뛰어난 점은 무엇보다 데이터를 중시 여기는 일본 학자들에 의한 연구인 만큼 자세한 데이터의 수집과 꼼꼼한 분석이다. 각 장은 수집한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2장은 이치카와 후사에(市川房枝)기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의 지방의회(도도부현, 시구, 정촌의회)의 남녀 의원의 현황을 선거별, 정당(당파)별, 지역별, 당선 횟수 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제3장 이후는 가나가와현의 지방의회 여성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데이터를 통해 전후 지방선거에서의 여성 의원 후보자와 당선자 추이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지방의회 여성 의원의 비율이

증가하는 시기와 속도가 국회 여성 의원의 경우보다 늦다는 특징을 보인다. 지방의회는 1990년대부터 여성의 의회 진출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데,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2007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처음으로 15%를 넘어서게 되었다. 반면 광역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도도부현 의회와 기초의회에 해당하는 정촌의회에서는 서로 다른 이유에 의해 여성 의원의 비율이 각각 7.5%와 8.4%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광역의 경우에는 정당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여 여성들이 정당의 공천(또는 추천, 지지)을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며, 반대로 정촌의 경우에는 무소속이 압도적으로 많이 당선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원과 조직이 없는 여성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매우 어렵다. 정당별로는 공산당과 공명당이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를 많이 배출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그 다음, 그리고 자민당의 경우는 매우 낮다. 다만 광역의회일수록 공산당은 많은 여성 후보를 공천하지만 당선자의 비율은 매우 낮다는 특징이 있다.

저자들이 분석한 전국적인 추이와 가나가와현의 공통적인 결론은, 지방의회의 경우 지역적인 특징이 중요하여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의회에서부터 남녀 비율이 반반인 의회에 이르기까지 지방의회의 여성 대표성의 현황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다만 1990년대 이후 분명 여성 의원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역의회에서도 당선을 위해서는 점차 전국 정당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의 결과, 재선 및 3선 이상의 여성 의원 비율도 증가하게 되어 여성들도 더 이상 '깨끗한 정치'의 상징으로서 신선미만을 가지고 정치에 도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곧 지금까지 여성 의원의 젠더 표상이었던 새로움과 깨끗함이 여성 대표성에 부여하고 있던 긍정적인 의미가 변화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가나가와현 여성 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조사는 여성 의

원이 당선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자료들은 당선된 남녀 지방의원들의 집단적 차이 및 여성 의원들 사이에서의 다양성을 잘 부각시키고 있다. 출마 동기, 출마 과정, 선거구 선택, 선거 운동, 선거 비용, 지지 기반, 선거 공약, 의회 활동 등에서 상당한 남녀 차이가 드러난다. 여성들의 경우 처음부터 정치에 참여하고자 한 경우보다 지역활동 및 시민활동, 또는 생협활동을 통해 점차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생활정치를 실천하고자 정치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가족의 지지와 이해를 얻기 쉬우며 선거운동도 개인적인 명성이나 조직력을 기반으로 하는 데 비해, 여성들은 커리어로서의 의원이라는 직업을 가지는 것에 대해 가족들의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개인적인 조직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당의 제안을 받아 입후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들의 경우 개인적인 명성과 조직이 부족해서 시민활동 당시의 네트워크나 정당과 같은 정치 조직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당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거 공약도 여성으로서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 왔던 생활이나 자녀교육 그리고 환경문제에 압도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기존 여성 정치의 연구들이었던 ‘어떠한 여성들이 정치에 진출하여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결국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가’라는 질문에, 이 책의 저자들은 어떤 연구보다 성실히 답하려고 노력했다. 기존 연구보다 뛰어난 점은 여성 의원을 하나의 범주로 다루면서도 지나치게 일반화하지 않았으며 그 내부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뷰의 내용을 충실히 소개하여 질적인 조사방법만이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시사점들을 끌어내어 남성 정치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류 정치학에서 소홀하기 쉬운 젠더 규범과 실천의 영향을 가시화했다.

다른 형태의 정치참여: 여성 젠더의 한계와 새로운 가능성

오야마와 구니히로의 연구가 여성 정치인의 부재와 낮은 정치적 대표성에서 출발했다면, 웨리 마틴의 *Popular Democracy in Japan: How Gender and Community are Changing Modern Electoral Politics*(일본의 대중민주주의: 젠더와 공동체는 어떻게 근대 선거정치를 변화시키는가)와 르블랑의 *Bicycle Citizens: The Political World of the Japanese Housewife*(일본어 번역본 『バイシクル・シティズン—「政治」を拒否する日本の主婦』(자전거 시민: 「정치」를 거부하는 일본 주부))는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출발한다. 마틴과 르블랑 모두 제도 정치 영역에 여성이 부재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광의의 지역 정치 영역에서는 여성의 참여가 매우 활발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두 저자는 모두 일반 여성 유권자,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이 높고 때론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에도 참여하는 지역 여성들에게 주목했다. 마틴은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설문자료와 여성 자신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보다 높으며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줄곧 유지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로부터 왜 여성들이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인식하면서도 투표와 같은 정치 행위에 활발히 참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마틴은 정치학자들이 지나치게 중앙정치에 집착하면서 일본 정치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중앙정부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일본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욕구가 지방정치 영역에서 분출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 정치의 변화의 동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의 변화로 인한 '아래로부터의 변혁'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틴은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무당(無黨)과 여성 유권자의 역할에 주목하여, 이 여성들이 정치 의식화되는 과정과 투표 행위와 같은 정치 활동

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들 의식화된 여성들이 대체적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다양한 생애교육과 정치학교 등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문제에 눈뜨게 되고,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태도를 바꾸어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적극적인 태도로 발전하였음을 발견했다. 저자는 전국 각 지역에 걸쳐 이렇게 지역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여성들이 등장했으며, 이들이 여성의 세력화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큰 동력이라고 평가한다.¹ 따라서 여성들이 느끼는 중앙정치로부터의 거리감이 반드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지방정치를 변화시킴으로써 아래로부터의 변혁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그 전략이 변화한 것이라고 본다.

마틴의 연구는 주류정치학이 등한시해온 지방정치와 여성의 의식화로 분석의 초점을 옮겼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의식임에는 분명하나, 젠더와 정치의 연구로서는 아쉬운 점도 있다. 무엇보다 의식화된 여성들이 분석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방정치의 권력구조 자체에 대한 분석, 즉 지방정당의 역할이나 중앙당의 지방선거에서의 역할 등이 어떻게 여성들의 정치 활동과 투표 행위와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성들이 생각하는 아래로부터의 변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물론 여성 유권자들이 투표 행위를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투표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제시한 사실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포커스 그룹의 대상자가 이미 정치적 인식이 매우 높은 여성들인 만

1 마틴은 이를 제3과 페미니즘으로까지 인식하는 의견에 조심스럽게 동의한다. 제1과 페미니즘은 19세기 및 20세기초에 걸쳐 여성참정권의 획득을 주요한 목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제2과 페미니즘은 1960년대부터 법제도, 섹슈얼리티, 모성, 노동과 같은 다각적인 시각에서 가부장제로부터의 여성의 해방을 주창하였다. 제3과 페미니즘은 일반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나, 1980년대 이후 제3세계의 페미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등의 영향으로 페미니즘 내부의 권력 비판 및 방법론적으로 보다 '비정치적인' 개인 문제에 집중하는 특징이 지적되어 왔다.

کم 이들이 경험했다는 생애학습을 통한 새로운 지식 창출, 즉 공동학습을 통해 정치 의식의 함양이라는 과정이 어느 정도 다수의 일반 여성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는 이러한 과정이 지역정치만의 특징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를 남긴다.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시민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정치 활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르블랑의 1999년 영문 저서에서 이미 지적되었다. 원서의 부제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저자는 ‘정치적인’ 것을 광의로 정의하여 지역사회의 주부들이 복지사업 봉사활동, 생협, 그리고 선거에 출마한 시민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활동을 참여 관찰을 통해 기록하고 분석했다.²

르블랑이 주목한 주부들은 일반적으로 제도 정치와는 무관하며 정치적인 것과 가장 멀다고 간주되어 온 보통 시민들이다. 주부란 일본 사회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기혼 여성이라는 젠더화된 사회적 위치를 의미하는데, 이들은 가족을 돌보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이며 가족의 일상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생활’ 문제의 전문가이다. 하지만 결혼이나 남편 직장의 이동으로 인해 타지에 정착하게 된 기혼 여성들은 그들 사이에 공통의 사회적 배경을 찾기 어렵다. 이들에게 주부라고 하는 지위는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을 넘어선 공통의 정체성이 되어 서로에게 공감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들은 주부라는 공통의 정체성에 기반하여 서로에게 공명하며 주부로서의 공동 관심을 발견하고, 이를 위해 함께 자원봉사 활동이나 사회 운동, 나아가 선거 운동에까지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주부 정체성이나 주부들의 지역 활동이 기존 정치학

2 이런 의미에서 일본어 번역본의 부제가 “정치’를 거부하는 일본의 주부”로 번역된 점은 이때의 정치가 소위 말하는 남성 중심의 ‘정치’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쉽다.

의 입장처럼 비정치적이거나 사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유하는 독특한 사회적 위치에 의해 발생하는 (따라서 정치적인) 또 다른 형태의 시민 활동으로 해석한다. 즉 주부들은 그들이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학교급식 문제나 안전, 생활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러한 문제를 공적 사회 활동으로 펼쳐나가는 데 정당한 주체들로 여겨진다. 또한 가장 비정치적이고 제도 정치로부터 먼 존재들로 생각되기 때문에 정치에서는 아마추어들이고, 바로 그 정치 아마추어리즘이 정치 프로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새 정치(깨끗한 정치)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일본의 지역 선거에서 '주부 후보'라는 것이 지지정당의 표명과 같은 정치적 입지보다도 더 효과적인 정치적 자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주부 정체성은 정치적 영역에서 배제된 사적 존재로 인식되어 온 기혼 여성들에게 공적인 영역에 진입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

저자는 주부들의 젠더화된 입지를 공식적인 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남성 정치가들의 '택시 시민'과 대비하여 지역사회 밀착형의 '자전거 시민'으로 개념화하고 대안적 시민활동(citizenship)의 모델로 평가한다. 주부들이 자기들의 좁은 생활공간을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전거는 다른 탈것보다 현저하게 천천히 이동할 수밖에 없지만, 지역사회 구석구석을 돌며 작은 일들까지 소상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더할 나위없이 좋은 수단이다. 택시로 지역사회를 이동하는 엘리트 남성 정치인은 택시가 달릴 수 있는 대로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지만, 자전거 시민은 실제 생활에 관련된 많은 소소한 문제들을 볼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시민은 이동 도중에 걷거나 같이 자전거로 이동하는 많은 보통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따라서 '자전거 시민'이란 택시로 움직이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주부들의 지역사회와의 관계맺기를 의미하며, 지역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시민활동에 가장 필요한

실천적 시민권의 형태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주부들의 자전거 시민권은 택시 시민이 중심이 된 정치 구조에서 충분히 정치 세력화할 수 있는 자원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자전거 시민의 정치적 가치는 기존 정치와의 차별과 거리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기존 정치에 진입해서도 기존 정치와의 차별과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주부들은 지방정치 영역에서도 언제나 가족에의 책임을 실질적, 윤리적으로 우선시하게 하며 기존의 정치 프로와 같은 금전과 권력 중심의 정치 활동을 거부하고 보통 시민의 아마추어 정치를 실현할 것을 요구받는다. 따라서 주부들이 정치 프로들과의 타협을 꺼려 지역복지 자원봉사 사업의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든지(제4장), 주부 정체성을 이용하여 자민당 참의원 의원에 당선된 오노 기요코(小野清子)가 선거구의 보통 주부들에게 외면당해 지역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사례들이 발생한다(제6장). 이와 같이 주부 정체성은 한편으로 주부들에게 공적 영역에서 시민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반면, 동시에 그러한 활동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는 기능도 하는 것이다.

주부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젠더 역할에 의해 요구되는 의무와 정치 활동(선거 운동이나 지방의원이 되는 데 필요한)을 하는 데 따르는 의무를 저울질하며 자신의 기여 한도를 선택한다. 이러한 태도는 주부들이 기존 정치에 무관심해서라기보다는 정치가, 정치 조직, 그리고 제도 정치의 성격을 잘 알면서 한편으로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정치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안적 정치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저자는 자전거 시민의 존재가 기존 제도 정치의 이익 유도형 정치 체질을 변혁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할지라도 택시 시민이 아닌, 또는 택시 시민이 되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만의 의사 표명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드러내준다는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시민권(liberal

citizenship)을 비판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즉, 자전거 시민의 정치참여 방식은 가사, 육아, 고령자 부양과 같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담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역할을 누가 담당해 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여, 이러한 역할로부터 자유로운 택시 시민만으로 구성된 정치가 아닌 자전거 시민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인 것이다.

문제 설정의 전환: 정치 영역의 남성성과 남성권력 재생산 분석

이상에서 검토한 저서들은 여성 지방의원 또는 여성 시민들의 지역활동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었다. 이들은 일본 정치가 남성들의 독점적인 영역이라는 전제를 공유하지만 정작 남성 의원이나 남성 젠더의 역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정치가 남성의 영역이라는 것이 거의 자명시되어온 것에 비해서, 정치와 남성 권력 재생산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놀라울 만큼 드물다. 정치 영역의 남성 권력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 재생산되고 있는가? 정치와 남성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르블랑의 두 번째 저서 *The Art of the Gut: Manhood, Power, and Ethics in Japanese Politics*(腹芸³: 일본 정치의 남성성, 권력, 그리고 윤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자전거 시민』을 발간한 지 10여 년 후 일본 정치의 주역인 남성에게 시야를 돌려 정치와 남성성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탐구한 수작이다. 정치의 젠더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주변부

3 원서의 제목인 *The Art of the Gut*은 일본어의 “腹芸”(하라게이)를 저자가 영문으로 번역한 것이다(164쪽). 하라게이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감정을 억제한 상태에서 심리상태를 표현하는 연기를 의미하는데, 곡예 등에서 누워 있는 사람의 배 위에서 다른 사람이 곡예를 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노련한 정치가 등이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고 마음 속에 억제된 채 난국을 타개하는 능력 등을 표현하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에 존재하는 여성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정치 영역에 합당한 젠더로 인식되어 온 남성성의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치와 남성성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여성을 배제하는 요인을 여성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정치 그 자체의 내부 논리에 의해 해명한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

르블랑의 젠더 분석은 매우 예리하여 정치와 젠더 문제를 단순히 남녀의 대립적인 관계, 즉 남성이면 유리하고 여성이면 불리하다는 식으로 도식화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 저자는 일본 사회의 ‘헤게모니 남성성’(가족부양자)⁴에 주목하고 이러한 남성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남성들의 정치참여를 규정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일반 남성들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윤리적인 책임을 떠맡고 있어,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위치에 있지 않는 이상 경제적, 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강요되는—즉 가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어려운—정치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헤게모니 남성성은 반드시 남성들이 시민활동(citizenship)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한다.

저자는 보다 구체적으로 정치적으로 각각 진보와 보수인 두 가지 지방 사례를 통해 남성성의 역할을 분석했다. 혁신 지자체로 유명한 ‘니자현’⁵의 ‘다케노마치’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어서 자민당의 입지가 부동인 도쿄의 ‘시라카와구’에서 권력의 중간관리자(power’s middle managers) 위치에 있는 두 남성을 관찰했다.⁶ 다케노마치는 1990년대의 혁신 지방

4 르블랑은 ‘헤게모니 남성성’이라는 개념을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념적으로는 코넬의 ‘헤게모니 남성성’에 가까우므로 이 서평에서는 코넬의 개념을 사용했다(Raewyn Connell, *Masculinities*, Cambridge: Polity Press, 1995; Sydney, Allen, and Unwin,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econd Edition, 2005).

5 저서에 등장하는 연구대상자와 지명은 모두 가명을 쓰고 있어 이 서평에서도 그대로 가명을 사용한다.

6 저서의 출판은 2010년이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저자가 1990년대 후반 일본에서 실시한 필드워크

자치단체로 주민투표 운동의 모델이 되었던 지역으로, 일반 시민이 자민당 중심의 구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무당파 연대를 형성하여 정치 활동을 전개했던 지자체다. 이 지역에서 시민과 후보를 내세워 혁신 정치를 이끈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자인 바바 씨다. 저자는 바바 씨와 그 동료들의 정치 활동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규범을 가족부양자 윤리(the breadwinner)에서 찾는다. 바바 씨는 다케노마치의 원전 개발 건설회사와 원전 추진과의 부패정치를 개혁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원전 건설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투표 운동을 이끌었지만, 정작 본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주점을 경영하는 근면한 가족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스스로가 정치가로 입문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대신 지자체의 정책에 주민투표의 결과를 충실히 반영시키기 위해, 주민운동의 지도자로서 지방의회 선거에 시민 후보자를 입후보시켜 당선시키는 운동을 전개해왔다.

저자는 다케노마치에 있는 바바 씨의 집에 머물면서 그를 중심으로 한 시민그룹이 선거전략, 후보자 선택, 선거 활동을 논의하는 모임과 타 정당과의 회합 등에 동석하여 후보자 선정 과정과 선거 운동을 수행하는 과정을 관찰했다. 바바 씨의 시민그룹은 지역을 위해서 ‘옳은 일’ 하기 위한 신념으로 선거 과정에 참여하고, 젊은 어머니인 여성 후보자를 시민후보로 입후보시켜 당선시킨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과 같이 가족부양자의 책임을 지고 있는 동료 남성의 입후보 전략을 포기하는데, 젠더 규범이 강한 지방일수록 오히려 남성부양자 규범이 강하여 일가를 책임지고 있는 남성 시민이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불안정한 정치가가 되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쓰레기, 건강, 환경, 복지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여성 후보자

에 기반하고 있다.

가 유권자들에게 더 설득력을 가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바 씨 그룹이 실제로 여성 후보자를 지지하여 당선시키는 전 과정은 지역의 혁신과 남성들의 조직에 의해서 결정되어 반드시 여성들이 참여하는 과정은 아니었다. 남성들의 일상적인 친분 관계와 가족부양자 윤리로 맺어진 네트워크는 이를 공유하지 않는 여성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권력 기제로도 작용됨을 알 수 있다.

다케노마치와는 달리 자민당의 강한 지지기반인 도쿄의 시라카와구는 어떠한가? 시라카와구에서는 오랜 기간 구의원을 역임한 부친을 계승하여 처음 구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젊은 남성인 다카다 씨의 선거운동을 통해 지방정치에서 자민당의 세력이 유지, 재생산되는 과정을 관찰했다. 저자에 의하면, 다카다 씨가 동원하는 전략은 정치가인 부친을 계승하여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믿음직한 젊은이, 즉 계승자윤리(the inheritor)라고 한다. 계승자는 ‘자기희생’이라는 집안 전통을 이어받아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정치가라는 가업에 충실한 효자의 모습이다. 성실하고 효성 지극한 계승자라는 정체성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정치 경험이 전무한 젊은 남성을 주민들의 대표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근거가 되고,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이 귀하게 자란 다카다 씨 본인에게는 가족부양자 규범에서 면제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한다. 사실, 대부분의 일본 남성들과 달리 자산가의 아들로 자란 다카다 씨는 가족부양자라는 의무를 지지 않는 대신 정치가의 계승자로서의 의무를 성실성의껏 수행함으로써 가족부양자인 다른 남성들과 남자로서 감내해야 하는 고생의 윤리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카다 씨의 윤리 규범은 자민당의 남성 중심적이고 서열적인 내부 질서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자민당식 지배 구조를 내면화하여 계승시키는 기제로도 기능한다. 다카다 씨 본인이 언급하고 있듯이 정치 세계에는 ‘야쿠자’와 비슷한 남성들만의 질서가 형성

되어 있어 이러한 가치와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는 여성들의 정치참여에 큰 장애가 된다. 저자는 남성들이 공유하는 남성성에 기반하는 이와 같은 양식을, 다카다 씨의 말을 빌려 “하라게이 정치”(‘gut’ politics)라고 부른다.

남성 동료들 사이에서는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공유하는 인식에 의해 상호 간의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아웅의 호흡’(阿吶の呼吸)⁷이 요구된다. 하라게이의 핵심은 말로 표현하지 않고 의미를 이해한다는 점인데, 이러한 하라게이가 통하지 않아 무엇이든 말로 설명하고 표현해야 하는 이들이나 여성들은 진정한 동료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하라게이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은 정치에서 진정한 남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남성이 장악하고 있는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 또한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남성으로서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자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라게이 정치를 수행하는 능력은 비단 보수 정치인뿐 아니라 진보 정치인에게도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저자는 다카다 씨뿐 아니라 바바 씨의 경우에도 중요한 타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라게이를 자주 동원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하라게이 정치는 남성들 사이의 침묵과 상호 이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남성들의 정치 권력을 강력하게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르블랑이 묘사하는 이러한 정치 세계에서는, 여성 의원들이 남성들의 가족부양자 역할에 동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라게이의 메시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탓에 정치의 주변부적 존재가 되기 십상이다.

남성성에 관해서 저자가 강조하는 또 한 가지의 논점은 정치와 남성성의 관계는 도덕적인 측면에 의해 지지되며, 그런 이유로 인해 그들의

7 阿는 들숨, 吶는 날숨을 의미하는데 이로부터 호흡을 맞춘다는 의미가 되었다고 한다.

행동을 제한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남성성은 누가 도덕적인 사람인가, 도덕적인 사람의 행동이란 무엇인가, 또는 ‘옳은 일을 한다’는 사명감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 이 책의 관찰 대상인 두 남성은 정치적인 이념도 정치 활동을 시작한 배경도 다르지만 성실한 남성으로서 옳은 일을 수행한다는 윤리관이 행동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바바 씨에게도 다카다 씨에게도 정치란 그들이 생각하는 옳은 일을 실천하는 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다카다 씨는 정치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리가 강하고 인정이 깊은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규범을 공유하는 책임감 강한 남성들이 오늘날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기대되는 정치 계승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며 설사 그것이 개인적인 꿈과 상치되더라도 수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르블랑은 이 저서에서 단 두 남성만을 관찰하고 있으나, 남성성이 일본의 지방정치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그 어떤 연구보다도 독창적으로 분석했다. 즉 남성성은 남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데 자원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일반 남성 시민에게는 오히려 정치 진출의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점과, 남성성의 윤리적인 측면이 어떻게 남성 정치인의 정치 활동을 규정하는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남성 정치인들의 행동과 여성 정치인들의 소외를 이해하게 하여 지방정치의 실상을 한층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많이 늦기는 했으나 젠더 분석틀을 이용한 일본 정치 이해하기의 시도가 200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주류정치학이 규정해 온 공사 구분에 기초한 ‘정치’의 틀을 넘어 무엇을 정치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를 새롭게 생각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무엇이 정치적이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자원인가 하는 것이 남성 권

력에 의해서 규정되어 왔다는 점과, 역으로 사적 영역과 사적인 정체성이 때로는 정치적인 자원이 되기도 함을 드러내주었다.

정치의 젠더 분석을 위해서는 단지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특징을 통계적으로 드러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여성성이나 남성성의 의미, 상호 관계, 젠더 규범이 정치 현상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여성과 남성 내부의 다양성까지 포함하여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분석 대상이 반드시 여성에 한정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르블랑이 시도한 바와 같이 정치 영역의 남성화의 문제점을 그 내부의 논리로 해명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보인다. 시각을 넓혀 보면, 해외의 “젠더와 정치”의 연구 분야에서는 이미 정치의 남성지배성(male dominance)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르블랑의 ‘하라게이 정치’는 선구적인 연구다. 다만 일본정치학과 젠더정치학의 간극으로 인해 그 공헌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일본 정치의 젠더 분석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ILBI: Korea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 12, 2015

CONTENTS

| | | |
|---|---|-----------------|
| 4 | Editor's Note | NAM Ki Jeong |
| | | |
| 50TH ANNIVERSARY OF KOREA-JAPAN NORMALIZATION: EVOLUTION OF CONFLICT AND COOPERATION | | |
| 26 | A New Paradigm of Korea-Japan Relations for the Next Generation: Reconciliation and Restorative Justice | CHUN Ja Hyun |
| 50 | Early Stage of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 NISHINO Junya |
| 72 | Legal Status and Social Position of Koreans in Japan: After the 1991 Memorandum of the Japanese South Korean Agreement | YOO Hyuck Soo |
| 102 | 50 Years after the South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and Delimitation of Maritime | CHO Youn Soo |
| 134 | South Korea's Diplomacy and the Evolution of Korea-Japan Security Relation | PARK Young June |
| 168 | Historical Perception, Developmental Strategy, Policy Idea and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Competitive Dependence in Political Perspective | YOON Dae Yeob |
| 196 | Cooperation and Conflict seen from the Rise and Fall of Bilateral Political Network | PARK Cheol Hee |
| 224 | Realizing and Overcoming the Double Mission: A Short History of Japanese Studies in South Korea | NAM Ki Jeong |
| 264 | Retrospect of Korean Students Studying in Japan after the 1945 Liberation | KIM Young Jak |
| 290 | Understanding Japanese Local Politics through Gender Analysis | SHIN Ki Young |
| | | |
| RESEARCH NOTE | | |
| 308 | Power Shifts and Japanese Bureaucracy: Relationship between Bureaucracy and Power Shift during the Two Power Shifts | SHINDO Muneyuki |
| | | |
| ARTICLES | | |
| 328 | Cross-Boundary, Cross-Lingual and Cross-National Writings of Yoko Tawada | CHOI Yun Young |



Korea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2015 상반기, 제12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발행일 2015년 2월 15일 | **발행인 겸 편집인** 박철희 | **편집위원장** 박규태 | **편집간사** 이은경

편집위원 강태웅, 권숙인, 김봉진, 김효진, 남기정, 목수현, 박진우, 신기영, 양일모, 원지연, 유혁수, 윤상인, 이은경, 이지원, 이지형, 임성모, 장인성, 정진성, 조관자, 최영호, 황성빈

발행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 **전화** 02) 880-8503 | **팩스** 02) 874-3689

제작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전화** 02) 880-5220

ISSN 2092-6863 Copyright © 2015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비평」에 실린 글은 일본연구소 홈페이지(ijs.snu.ac.kr) 및 디비피아(www.dbpia.co.kr) 등에서 보실 수 있으며 구입,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로 연락 바랍니다.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하며 책임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일본비평」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행되고 있습니다(NRF-2008-362-B00006).

차례

- 4 **편집자의 말**
한일 국교정상화 50년: 갈등과 협력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남기정

특집: 한일 수교 50년 갈등과 협력의 진화

- 26 다음 세대를 위한 한일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화해, 그리고 회복적 정의 천자현
50 한일 경제 협력 관계의 시작과 제도화 과정 니시노 준야
72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및 사회적 위상: 1991년 합의각서 이후를 중심으로 유혁수
102 한일어업협정과 해양경계 획정 50년 조윤수
134 한국외교와 한일안보 관계의 변용, 1965~2015 박영준
168 역사인식, 발전전략, 정책이념과 한일 경제 관계:
경쟁적 의존 관계의 정치적 시각 윤대엽
196 정치네트워크의 부침으로 본 한일 협력과 갈등 박철희
224 한국의 일본 정치 연구사: '이중과제'의 인식과 극복의 여정 남기정
264 **특별기고** 해방 후 1세대 일본 유학생의 회고 김영작
290 **특별서평** 젠더 분석을 통한 일본의 지방정치 읽기 신기영

연구노트

- 308 정권 교체와 일본 관료제:
두 번의 정권 교체에서 나타나는 관료제와의 관계 신도 무네유키

연구논단

- 328 다와다 요코의 탈경제적, 탈민족적, 탈문화적 글쓰기 최윤영

356 참고문헌

366 국문초록

371 영문초록